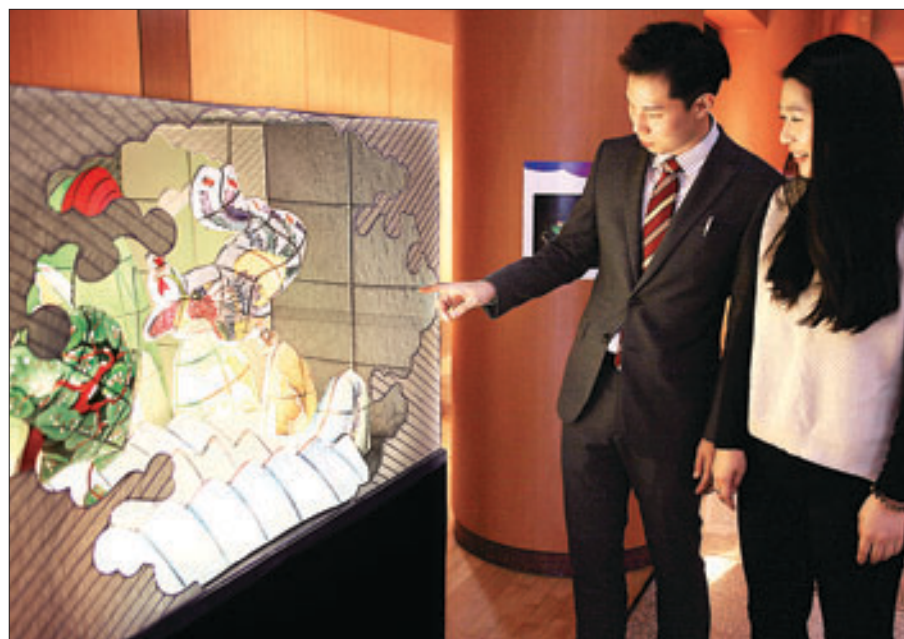


# 운판, 전통등으로 다시 태어나다

## 연등회 보존위, 12일까지 전통등 전시회 개최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제16회 연등회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전통등 기획전 주제는 '운판'으로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운판은 하늘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전은 2012년부터 4년간 진행해온 사물 연작(목어, 범고, 범종) 전시의 마지막이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향후 출품된 사물연작을 전시하는 기획전을 열 예정이다.



연등회보존회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연 가운데 젊은 남녀가 흥미롭게 전통등을 보고 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전통등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상징으로 우리민족의 삶과 함께 했다"며 "이러한 전통을 기리는 차원에서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가 매년 성장하는 작가들의 예술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nul.com

# 반야심경 1080번 쓴 붓끝의 공덕

## 원명 박계준 회수 사경전...11월 19~25일 대전 갤러리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붓끝으로 써내려가는 사경은 수행 중에서도 예술과도 맞닿아 있다. 2010년 반야심경 1080번 사경을 발원한 한 불자의 전시전에 눈길이 가는 것은 그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구도열 때문이다.

씨의 정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사실, 사경은 다양한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경을 하다보면 때로는 다른 경전을 하고 싶고, 때로는 금니나 은니와 같은 화려한 사경을 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는 반야심경만을 백지묵서 사경으로 4년 6개월을 해왔다.

원명 박계준 씨는 11월 19일부터 25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에서 사경전을 개최한다. 4년 6개월 동안의 작품을 총망라한 이번 전시전에는 오로지 반야심경 사경의 작품만이 전시된다. 특히 관세음보살도와 함께 실린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박

박계준 씨의 정진은 20여년 전 세등선원에서 1000일 새벽기도에서 100만배 수행으로도 드러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이

미 1980년부터 왕희지 <난정서> 입서작품 등을 연마한 후 서예가로도 입지를 다졌지만 초심으로 사경을 해왔다.

박계준 씨는 "처음 한국사경연구원 회원으로 입문해 반야심경 1080번의 원력을 세워 회수가 되어서야 전시전을 열게 됐다"며 "그동안 반야심경에 집중해 다른 세밀한 작품을 하기에는 힘이 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외길 김경호 선생은 "사경은 법사리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라며 "보통 반야심경 1번 사경에 4시간이 걸리기에 1080번은 5000여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여기에 오로지 붓 끝에 정신을 집중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했다. (042)480-5000 노덕현 기자

# "상설전으로 불교문화재 어느때나 보세요"

##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호림 명품 100선' 전, 2016년 2월 27일까지

국보 8점, 보물 52점을 소장하고 있는 호림박물관이 문화재를 한자리에 선보이는 '호림 명품 100선'전을 11월 10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 서울 신사분관 2~4층에서 연다.

입상', 보물 제1047호로 지정된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가 전시된다.

상설전으로 운영되는 이 전시에는 불교미술품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총 3부로 나누어 전시되는 전시전 중 2부 '불교미술-영원을 담다'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만들어진 불교 조각과 금속공예품, 회화, 전적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보물 제808호인 삼국시대 '금동탄생불

제1부 '상형토기\_바람을 담다'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영원이 담긴 상형토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3부 '명품도자'에서는 우아한 고려청자, 자유분방한 분청사기, 절제미가 배어 있는 백자가 전시되며, 뚜껑 형태의 분청사기인 '분청사기 삼강 연판문'도 전시될 예정이다.

호림박물관 관계자는 "기획전 위주로 운



'호림 명품 100선' 2부 '불교미술-영원을 담다' 출품작 일부 모습

영하던 신사분관에 새로운 기획전시실을 마련해 상설전을 열게 됐다"며 "상설전에서는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을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41-3523 노덕현 기자

#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 부패한 재벌에게 던지는 주먹 한 방

##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이 1,35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흥행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류승완 감독은 액션활극의 베테랑이다. 그러나 '베테랑'이 류승완 감독의 전작 영화에 비해 더 액션이 화려하거나 서사가 입체적인 것은 아니다. 외러 복고적이다. 류승완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베테랑' 액션은 희극적인 요소가 있는 성룡의 액션을 답습하고 있어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베테랑 속 '조태호'는 현대 자본주의의 부패한 재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필자는 '베테랑' 흥행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관객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줄거리는 간단하다.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가오(威信)가 있는 서도철(황정민) 형사가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의 살인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 인품에 위신 있어야 '베테랑'

### <보살내시경>으로 경제윤리 정립 하심의 수평적 리더십 필요해

류승완 감독은 "우리에게 이런 형사한 명종 있는 거 좋잖아? 서도철 형사 같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베테랑>을 찍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관객들이 재벌 3세에 맞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서도철 형사에게 환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벌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속 조태오라는 캐릭터는 어딘지 모르게 기시감이 들게 한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정호 회장의 조카이자 M&M의 대표이사 최철원은 2010년 SK본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땀으로 기사 유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했다. 최철원은 폭행 후 멍값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다고 한다.

영화 속 조태오라는 캐릭터는 어딘지 모르게 기시감이 들게 한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정호 회장의 조카이자 M&M의 대표이사 최철원은 2010년 SK본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땀으로 기사 유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했다. 최철원은 폭행 후 멍값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다고 한다.

유정환 전 모토드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풀피뎀을 투약한 상태로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다 차랑 4대와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유정환 대표는 충돌사고로 자신의 벤틀리가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를 버리고 인근에 있던 아반떼를 훔쳐 타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털어버린 성스러운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법전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법전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유정환 전 모토드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풀피뎀을 투약한 상태로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다 차랑 4대와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유정환 대표는 충돌사고로 자신의 벤틀리가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를 버리고 인근에 있던 아반떼를 훔쳐 타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영화 속 조태오의 모습 그대로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길 희망한다.

부처님은 타고난 신분에 의해 귀천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귀천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윤리가 <보살내시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전에는 상인의 매매에 대한 윤리가 적혀 있다. 그 내용은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무거운 저울이나 가벼운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라', '커다란 말이나 작은 말을 가지고 남을 칭해하지 말라', '작은 자를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요. 찬दार족의 아들인 마랑가는 개백정으로 불릴 만큼 천한 사람이었지만 벼를 밟아 먹어준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부처님은 타고난 신분에 의해 귀천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귀천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윤리가 <보살내시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전에는 상인의 매매에 대한 윤리가 적혀 있다. 그 내용은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무거운 저울이나 가벼운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라', '커다란 말이나 작은 말을 가지고 남을 칭해하지 말라', '작은 자를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 '저울'이나 '자(尺)'라는 단어를 사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

유용오 작가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교당리 473-2

#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0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보)    www.shcandle.com